

무주군,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

지난 한 해 자체 추진해 마무리된 사안 승소율 100%로 7억4000여만원 절감

무주군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2020년 행정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통해 진행한 군청 각 실과소 행정사무 자문은 약 130여 건으로 민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이 절차에 맞게 진행 되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 13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단, 3건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10건에 달한다. 이중 승소가 7건(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이며 3건은 진행 중이다.

무주군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

해 마무리된 사안의 승소율은 100%로 소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감 금액이 7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인용 방지율도 100%에 달한다. 무주군은 청구사건 12건 중 각각 3건, 각하 7건, 일부 인용 2건 등이 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법무규제팀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자치법규, 소송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을 채용해 송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무주군청 기획실 주홍규 실장은 “행정예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

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 편에서 행정사무, 그리고 법률 자문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속칭 ‘공일법’)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 교육 진행도 계획 중이다.

3월 23일부터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이 6개 읍면을 직접 순회하며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법률관계, ▲민·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5개 읍·면에 각 1개소... 관내 총 10개소 운영

진안군은 16일 주민과 길고양이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길고양이들의 개별적인 먹이공급을 구역별로 정리, 통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안읍에 5개소를 설치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는 5개 읍·면에 각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관내에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반려동물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도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기존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지정·운영하며 신청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고양이 사료를 지원한다.

특히 적정량의 사료공급으로 쓰레기 분투 해체를 방지하고, 서식환경 개선에 따라 고양이 구내염 등 질병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급식소를 이용하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도 시행하고 있어 개체 수 조절도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주민과 길고양이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고, 서식지 주변환경 개선으로 군민과의 건강한 공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해빙기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장수군이 오는 19일까지 안전 취약 시기인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가스충전시설, 판매시설, 고압가스저장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군은 일차 리경제과장을 반장으로 안전점검반(3명)을 구성해 LPG자동차 충전시설 2개소, LPG용기판매시설 8개소, 고압가스저장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운반차량 경고표시 및 용기적재 방법 ▲종업원 법정 안전교육 이수 및 교육훈련 여부 ▲점검카드 기록유지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숙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하고 지적된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등 불안요인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또 가스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병행 전개해 가스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사과 병해충 예방 요원 양성 온라인 교육

무주군이 사과 병해충 예방요원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과 재배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병해충 예방요원 희망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9일까지 실시된다.

사과 병해충 관련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교육 첫 날인 15일은 (사)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 정일대표 등 전문가들로부터 병해충 예방의 이해, 도감의 병해 및 해충, 농약 분류표에 대한 교육이 실시, 16일부터 18일까지 시기별 사과원 병해충 예방요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 평가를 통해 사과 전문예찰 전문요원을 최종 선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해 19일까지 자동차판매점 방문 계약

진안군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3월 11일) 기준 3개월 이상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22대, 화물 30대)로 지원금은 1대당 승용차 최대 1,700만원, 화물차 3,000만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지원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해 온라인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한다.

대상자 선정 후 출고 지원을 받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기간 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19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개강

장수군의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제19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이 개강하고 본격 수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모집된 장수군농업인대학에는 모두 110명이 등록했으며, 사과반을 비롯하여 올해 신설한 두릅반,

포도반 등 3개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두릅반과 포도반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신규 개설한 과정으로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으로 많은 교육생이 등록했다.

이번 농업인 대학은 16일 사과반을 시작으로 두릅반 17일, 포도반 18일

등 과정별로 개강해 각 과정별로 월 2~3회, 총 21회, 100시간 내외의 교육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되며,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 강의 녹화본을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농업인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3기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 개강

제13기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이 16일 개강했다. 사과과(매주 화요일)와 포도(사인머스켓 / 매주 목요일)과에 107명이 수강(총 44회)할 예정으로 현장 수업도 병행한다.

강사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김천과 육천, 대전농업기술센터, 충남농업기술원 소속 지도사들로, 사과과에서는 ▲사과원 토양관리부터 ▲병해충 예방, ▲정지전정, ▲착색관리, ▲수확 후 저장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포도(사인머스켓)과에서는 사인머스켓 ▲발아기 관리요령을 비롯한 ▲포도 영양생리 및 수분관리, ▲알 숙기 재배기술 현장교육, ▲사인머스켓 장기저장 및 유통기술, ▲수확 후 포도원 관리 등을 강의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반딧불농업대학은 무주가 건강기득 소득농업을 실현하는 기반이자 출발선”이라며 “농업인들의 역량이 키워지고 그로인해 무주농업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속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편, 16일 무주군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개최된 개강식에는 황인홍 학장(무주군수)과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농업대학 수강생들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장수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입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냉해, 수해 등 연이은 재해로 처져있던 몸과 마음, 농사에 대한 의욕이 다시금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니 제대로 승부를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능력,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개설돼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모바일마케팅 등 다양한 학과에서 1,549명의 졸업생이 배출돼 무주농업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